



메리츠증권 ‘참사랑 봉사단’으로 나눔활동 실천

메리츠증권증권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위해 자발적 봉사 단체인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을 출범하고, 매월 한 차례씩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참사랑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지속해서 발굴해 다양한 테마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 생신 잔치, 무료급식 지원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배달 등을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구세군 두리홈 - ‘미혼모 아기 돌보기’

미혼모 시설단체인 ‘구세군 두리홈’을 분기 한 차례씩 방문해 아기 돌봄을 실천 중이다.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미혼모들이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리홈은 1926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미혼모 복지시설로,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아름다운 가게 - ‘아름다운 토요일’

2008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매년 여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은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증하고, 행사 당일에는 명예 점원이 돼 판매 활동을 펼친다.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한다.

더그림 - ‘벽화그리기’

주말에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지의 초등학교 등에서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다. 가족과 함께 봉사와 여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쉽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봉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 대한적십자사 구로봉사센터를 통해 사랑의 빵 만들기와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 전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설, 추석 등 명절마다 인근 지역 홀로된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과 온정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설을 맞아 38명이 직접 포장한 음식을 마포구 일대 135명의 어르신에게 찾아가 전달했다.

참사랑 봉사단 김창식 팀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만나 사랑을 나눌 때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며 “사랑 나눔 활동을 통해 봉사자와 이웃 간 참된 소통을 한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사랑 봉사단은 적극적인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저소득·소외계층 부문), 2015년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❶